

최무열 교수의 하나님 마음 담은 레위기

<제4장 :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니....>

1. 오늘의 포인트

- 1) 예배자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들이다.
- 2)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예배를 올려 드리자.
- 3)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예배를 삼가자.

2. 본편

- 1) 도대체 예배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이기에...
- 2)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
- 3)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의 예배의 위험성

1) 도대체 예배자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기에 이렇게까지....(8장)

(1) 제사장 위임식에 준비해야 할 것들

- 그들에게 입힐 옷을 준비
-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을 준비
-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준비
-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준비

(2)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입힐 의관을 준비

-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함 - 예배자의 정결함.
-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 줌- 예배자의 내면의 삶
- 띠를 띠워 줌 - 예배자는 하나님과 회중의 연결
-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혀 줌 - 예배자의 외적인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
-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에봇 띠를 띠워 줌 - 외면과 내면의 삶 조화
- 우림과 둠뭇을 넣는 주머니가 달 :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감
-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예배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임
-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 줌- 예배자는 고귀함

(3)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

- 위임식은 온 회중들 앞에서 행하여 짐 : 예배자는 온 회중을 대표
- 기름으로 성막과 성구, 제단과 아론을 거룩하게 함 - 성령의 기름부으심

- 아론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함 : 예배자 가족 전체가 거룩함
- 먼저 속죄제를 드림 : 예배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
- 두번째 번제를 드림 :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 위임식 제물을 드림 : 예배자는 드림의 삶
- 위임식 예식의 정점 : 피를 바름
 - 1) 아론의 오른쪽 귓볼 :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 2) 오른쪽 엄지손가락 :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 3) 오른쪽 엄지발가락 :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감
 - 4)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서약
- 마지막으로 고기와 빵을 먹게 함 : 하나님과 성도와의 소통과 교제
- 7일 동안 행해지는 위임식, 7일 동안 회막에 거해야 하는 제사장들 -

(4)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예배자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셨다.

4)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9장)

(1)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위한 정성어린 준비

- 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한 송아지 준비
- 제사장의 번제 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 준비
- 백성의 속죄제물을 위한 숫염소 준비
- 백성의 번제를 위한 송아지 준비
- 백성의 화목제로 바칠 수양과 수소 준비
-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소제) 준비
- 그들은 이렇게 철저히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2)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위한 제사장의 준비

- 속죄와 헌신의 준비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과 철저한 속죄
-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의지

(3)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위한 백성들의 준비

- 속죄 : 회개를 통한 정결함의 준비
- 번제 :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겠다는 준비
- 화목 :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준비
- 소제 :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겠다는 준비
- 요제 :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준비

(4) 예배의 인도자들이 먼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예배로 나아옴

(5) 그 다음 백성이 속죄와 헌신,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들

- 백성을 위한 속제 즉 죄 사함의 예배를 드림
- 백성을 위한 헌신의 번제를 드림
- 백성을 위한 감사와 교제의 화목제를 드림
- 백성을 위한 겸손의 소제를 드림
- 백성을 위한 봉사의 요제를 드림

(6) 온 백성을 위한 축복의 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 6:22-26)

(7)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주의 영광(Shekinah cloud)의 구름이 그 예배의 처소를 뒤 덮음
- 불이 나와 제단의 기름을 전부 태워 버렸음
-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놀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

(8) 거룩한 식탁의 교제로 예배가 끝이 남.

- 성도와 예배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다
- 예배자는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 예배자는 신령한 것으로 배불러야 양들이 배부르다
-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성찬)을 상징한다
-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

5) 예배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죽을 죄인가?

(1)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

-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 제각기

-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 갔다.
-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2)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심

(3) 하나님이 대노하신 이유와 목적

- 주를 가까이 하는 예배자들이 먼저 거룩해야 하고 백성에게 위엄을 보여야 함

(4) 하나님은 왜 이들을 죽음으로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인가?

-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점
- 모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였다는 점
- 혼자서 해야 할 일에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였다는 점
-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향도 살라 바쳤다는 점
- 제사장의 직위를 남용하였다는 점
-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급하게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했다는 점
-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점
-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했다는 점

(5) 왜 예배자가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왜 죽을 죄인가?

-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역자가

(6)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레 10:8-9)

(7) 왜 예배자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였을까?

- 예배자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할 사람들
- 예배자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할 사람들
- 예배자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

(8) 오늘의 예배자들이 성령충만하여 예배를 인도해야 할 이유

- 예배자가 먼저 성령충만해야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다.
- 예배자가 먼저 성령충만해야 사역이 힘들지 않다.
- 예배자가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죽이기 때문이다.

3. 오늘의 적용

- 1)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기억하자.
- 2)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정성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하자
- 3)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심을 기억하자.